

이긴자 일대기 [11]

신양리 형무소에 재수감되다

조희성 주님이 대동군 치안대장직을 수행하면서 약 5천 명의 공산당을 생포하는 등 평양지역 공산당 소탕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산주의에 몰든 포로들 역시 우리의 한 피요, 한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한 명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안대원 가운데는 자기 가족이 빨갱이들에게 몰살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이 치안대장이라는 자 때문에 복수를 못하게 되니 그들 중 몇몇은 주님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앙심을 품은 두어 명이 결탁하여 평양 시내로 달려가서 미 헌병대에 고발하기를, "우리 치안대장이 공산주의자이니까 이 공산주의자를 끌어다 잡아넣든지 죽여서 없애든지 하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조희성 주님은 미 헌병에게 총을 맞아 죽을 뻔했지만, 주님은 치안대장이기에 소제(蘇制) 권총이 두 자루가 있어 양쪽 허리에 실탄이 장전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헌병이 지프차를 타고 와서 갑자기 권총을 들이대며 영어로 주님을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명의 헌병이 주님에게 총을 겨눌 때, 주님도 하는 수 없이 살려나간 재빨리 쌍권총을 꺼내 들고 양손으로 겨누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총을 쏘면 나는 금세 죽지 않는다. 나도 쏘아 같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영어로 말을 하니, 자기네들도 살려나간 도로 총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 신양리 형무소 (평양 감옥)

헌병은 치안대장이 빨갱이라는 정보가 들어와서 잡으러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쪽 손으로 팔의 'POLICE CHIEF'라고 쓴 완장을 가리키며, "나는 빨갱이가 아니고 빨갱이를 잡아서 포로로 형무소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이 지역의 치안대장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높은 사람 캡틴에게 가자."고 하니, 주님은 지프차를 같이 타고 미 헌병대 본부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 헌병대장은 주님을 보자마자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형무소에 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무소는 조희성 주님이 한 달 반 동안 고생했던 신양리 형무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주님은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쓰면서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게 되니 당시 대동군 치안대원 30여 명은 몰살당했으며,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양숙이란 처녀도 그때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부산 가야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온 인민군들에게 듣고 동료들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신양리 형무소에는 앞서 주님이 직접 포로로 잡아서 집어넣은 인민군 수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주님이 들어가니 많은 포로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서 치안대장인 당신이 여기에 들어왔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무는 군인도 아닌데 이곳에 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왔으니 크게 잘못 되었시다." 하며 동정어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그렇게 되었노라고 답답하게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붙잡혀서 들어온 포로들은 반동분자 치안대장이라고 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꼬집고 못말을 가해 왔던 것입니다. 빨갱이들은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서 조희성 주님을 모포로 뒤집어 씌워놓고 집단으로 구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주님은 그 자신이 때 맞았을 때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단에 계속**



부산 포로수용소 3 캠프 제4의료 구역
(출처: 워싱턴=연합뉴스)

인천 상륙 작전과 서울 수복 이후 급증하는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미 8군은 10월 말 7만 5,000명 규모로 수용소를 확대·건설 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약 11만 명의 포로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10월 25일 중공군의 참전으로 포로의 숫자는 중공군을 포함하여 14만 6,000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인천, 평양에 따로 포로 수용소를 건설함으로써 부산으로의 포로의 유입을 막으려 하였다. 그리고 부산 거제리 포로 수용소를 제6포로 수용소까지 확장하는 등 공간 확보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12월 중순경에는 '수영 대밭 제1 포로 수용소, 제2포로 수용소, 제3포로 수용소'와 '가야 제1포로 수용소, 제2포로 수용소, 제3포로 수용소'를 증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0년 11월 27일 유엔군은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연초면·남부면 일대 1,200만㎡ 부지에 포로 수용소를 설치키로 결정하였다.

1951년 2월말 거제도 포로 수용소 건설이 마무리 되면서 부산 거제리 포로 수용소에 있던 포로들을 이송하기 시작하여 5만여 명이 옮겨졌다. 3월 1일에는 주요 본부 및 경비 대대 등 관련 부대가 거제도도 이동되었으며, 나머지 포로의 이동이 계속되어 3월말까지 이송된 포로의 숫자는 약 10만 명에 이르렀다. 6월말 경에는 육지 포로들의 이송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수용 인원이 14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다.

출처: 부산포로수용소(釜山捕虜收容所) - 한국항토문화전자대전

인고의 나날들

수만 명의 포로들이 복잡대고 있는 신양리 형무소는 더 이상 수용능력이 없게 되자, 일부 인원을 주려서 동양방직 공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미군 경비병의 눈을 피하여 못매질하는 빨갱이 소굴이나 다름없는 신양리 형무소에서, 조희성 주님은 동양방직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동양방직 공장의 임시 수용소에서는 주님이 대동군 치안대장이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거의 없어서 매를 맞지 않고 편안히 지낼 수가 있었는데 그 것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 인천 임시포로수용소에 갇힌 인민군 포로들(1950년 10월1일) _ 출처: 인천민

임시 수용소의 식사 시간에는 밤이 들어오는데 통밀과 콩을 삶아서 주고 부식은 소금국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털뿔 뿔었던 주님은 결국 감기가 걸려 목이 아프고 몸에서는 심한 열까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변비 증에 걸리고 말았는데, 그 방직공장 수용소에서는 밀을 주로 배식하기에 그걸 먹다가 그만 지독한 변비로 대변을 볼 수 없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을 고생하던 조희성 주님은 의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용소 내의 길바닥에 쓰러져 공공 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국군 육군 대위가 그 광경을 보고 주위에 있던 포로에게 "이 사람 왜 이러는가?" 하고 묻자, 포로가 대답하기를 "변비로 항문이 막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군 장교는 쓰러져 있는 주님을 잠시 살펴보다니 주머니에서 다이어지 두 알을 꺼내 먹였습니다. 얼마 후 알약 효과가 있었는지, 바지 내릴 시에도 없이 변을 보았습니다. 할 수 없이 똥 범벅이 된 옷을 버리고 모포로 몸을 감고 양지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털뿔 떨어 아판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되어 조석으로 서늘한 때였으며 모포로 몸을 감고 식사를 타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온 밥을 먹지 않고 밥 한 그릇으로 속을 하나와 바

꾸고 또 이른날 밤 한 그릇으로 바지 하나와 바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이 지나서야 복장을 다 갖출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수용되어 있는 자들이 한참 먹을 시기인 젊은 사람들이라 적은 급식량으로는 항상 배가 고프고 상태였기 때문에 옷과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은 회복되지 않고 곧바로 이질에 걸려 밥을 먹기만 하면 계속 그대로 설사로 나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얼굴과 몸 전체는 빼만 앙상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약한 몸으로 있을 때, 전황이 국군에게 불리하게 변해 중공군에 밀려 남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국군이 계속 북진하여 함경북도 일부지역 중공군과 나진 등만 손바닥만 하게 남아 있어서 이제는 남북통일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 북한 동포들은 해방감이 젖어서 희망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11월 말경 중공군 50만 명의 큰 부대가 한국전선에 투입되어 압록강을 건너와서 대혈전이 벌어졌다는 청천백령과 같은 뉴스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2월 겨울이라 날씨는 혹독하게 추워졌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니 포로들은 서로서로 몸을 기대고 추위를

이겨야 했고, 일선 전투상황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3개 사단이 중공군에게 포위당해서 혈전 중이고 우리 국군은 단계적인 후퇴를 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정보만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병고(病苦)로 수용소 탈출 못한 것에 하나님의 깊은 뜻 있어

미군들은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모든 포로들을 후방으로 후송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은 포로들로 뻘뻘이 들어간 기차 화물칸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고생 끝에 도착한 곳은 인천이었습니다. 주님은 고향이 김포라서 이 지역의 지리를 훤히 알기에, 여기서 탈출을 시도하면 성공할 것 같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몸이 쇠약해져 있는데도 여전한 이질이 낫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탈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탈출을 병고(病苦)로써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을, 주님 그 자신은 나중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탈출했다면 국군이 계속 후퇴하며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전쟁에 참전하여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전세(戰勢)는 점점 불리하여 파죽지세

로 북진할 때와 같이 후퇴하는 속도도 빠르지만 하였습니다. 70만 평양 시민들은 앞을 다투어서 서울을 향하여 보따리를 둘러메고 남쪽으로 피난길에 오르고, 함흥시 항구에서는 미군들이 수송선에 올라타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한편 미군들은 인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을 다시 부산 가야 수용소로 이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화물열차에 몸을 싣고 포로들과 함께 남으로 탈리게 되었습니다. 고향 김포와는 점점 멀어지니 여기서 도망 못하면 앞으로는 더욱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감으로 탈리는 화물열차에서 철길 밖으로 몸을 날렸 습니다. 그러나 피골(皮骨)이 상점하고 쇠약한 대로 쇠약한 몸인지라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포로수용소 안의 의무실이었습니다.

부산 가야 수용소에 도착한 주님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수용소를 건설하는 작업에 투입되어, 포로를 지키며 감독하는 미군들에게 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나 성한 사람 상관없이 포로들을 때리고 가혹하게 작업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질이 걸려 기운이 없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나르다가 주저앉은 조희성 주님에게, 미군은 "갓뎀(God Damn)"하고 소리 지르며 군화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허약한 몸은 저만치 붕 떠서 군두박질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쇠약한 몸을 끌고 무거운 돌을 운반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쫓아와서 매를 가하기에, 다시 그 돌을 짊어지고 가다가는 또 쓰러지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일은 당해 본 자가 아니면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표시를 해도 소용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조그마한 돌이라도 지고 쉬지 않고 운반하는 죄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13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13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다

Salvation is 'to b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and become God.'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요한복음 3:5)

You must be born again of the Holy Spirit to be saved (John 3:5)

:사망의마귀 영인 '나라는 주체 의식'을 없애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영이 아닌,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긴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구원이다.

We must get rid of the spirit of the devil of death, the 'The Awareness of I' and be born again with the Holy Spirit. Salvation is achieved by being born again not by the human spirit that cannot overcome the power of death, but by the spirit of God, the Savior who has completely overcome the power of death.

:본질적으로 태초의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였다.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사망의 영, 마귀이다. 영적인 무덤인 마귀 영의 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Essentially, God in the beginning was the immortality. Leading human beings to be killed is just the life-killing spirit, Satan. Getting out of the spiritual prison of Satan and becoming God again is the way for men to have eternal life.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에베소서 2:8)

Salvation is obtained through faith (Ephesians 2:8)

: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영생을 뜻한다. 믿음은 '믿는 마음'이 아니라 구세주 하나님이 '영생의 확신과 은혜'를 주셔서 '구세주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영생의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이다.

Faith is a gift from God and means eternal life. Faith is not a 'believing heart', but the Savior God gives 'the assurance and grace of eternal life', and enables us to be reborn with 'the Spirit of God who overcame the power of death of the Savior', thereby achieving salvation of eternal life.

생명 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창세기 3:22)

You must eat the fruit of life to be saved (Genesis 3:22)

: 생명 과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의 영'이다. 누구든지 '나라는 주체 의식을 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다. The fruit of life is the 'Spirit of God, the Savior who has overcome the power of death'. Anyone who abandons 'The Awareness of I' and is reborn as the 'Spirit of God, the Savior who has overcome the power of death' is saved.* by Alice